

오리와 고상식축사



곽춘욱 대표이사
(주)건지

적육(赤肉 : 빨간색을 띠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보다는 백육(白肉 : 흰색을 띠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 오리고기가 우리 국민에게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오리산업이 발전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반해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오리업계는 물론 가금업계의 전반을 뒤흔드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AI는 가금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대 AI로 인한 피해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에 다다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리를 포함하여 우리 가금업계가 떠안는 악순환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AI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그 때마다 살처분이나 매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조차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며 어떻게 하면 그 업무에서 벗어날까 고심조사하고 있는 현실은 업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 우리의 현실

실제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환경을 들여다보면 다소간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리농장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다수의 농장에서는 오리에 대한 기본인식의 부족으로 축사환경이나 사양관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리는 원래 물에서 살아야 하는데 물에서 사육하니 어쩔 수 없다”라



사진 1 | 하우스형 오리사

든가, “오리는 기름기가 많아 추위도 생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등.

실제 그럴까?

중요한 것은 오리도 사람처럼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항온동물(恒溫動物)이라는 사실이다. 계절이나 외기온에 따라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변온동물(變溫動物)이 아니다. 그리고 호흡을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환기도 절대 필요한 동물이 오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악한 오리사에서 사료와 물만 공급하며, 오리는 당연히 잘 자랄 것으로 인식하고 축사환경을 소홀히 하고 있다.

더구나 바닥상태는 배설된 축분과 깔짚이 범벅이 되어 시궁창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척거리고, 축분이 온몸에 묻은 오리는 마치 석탄가루를 뒤



사진 2 | 오리사 내부환경



사진 3 | 오리사 사육현장

집어 쓴 듯 심하게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관리 인조차 장화를 착용하지 않고는 오리사를 들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AI는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만 찾아올까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종전에는 겨울철새에서 유래되었다고만 추측했을 뿐 아직까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제는 계절을 초월하여 발병하고 있기에 전문가들조차 헛갈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기온이 낮은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사의 보온단열은 거의 무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겨울에도 윈치 커튼을 개방하고 사육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이유는 보온설비와 환기설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오리에게 “춥더라도 환기를 시켜줄까, 아니면 모두 틀어막고 보온을 시켜줄까?”를 묻는 것과 같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농가는 비록 유해가스가 발생할지라도 질척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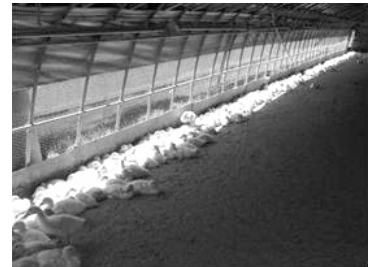


사진 4 | 바깥쪽에 몰려있는 오리들

깔짚을 보충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녹록하지 않다. 깔짚비용과 인력의 어려움은 물론, 조악한 작업환경은 갈수록 그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에서 AI는 물론 각종 질병에 오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고, 집단사육으로 인한 오염은 심각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 우리는 AI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까?

단언하기 힘들지만 이제 어느덧 AI는 토착질병이 되어버린 듯하다. 과거에는 겨울철새에 의한 동절기형 질병이라 했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 개념조차 무너져버렸다. 여차하면 연중 발병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변이형 균주가 이미 등지를 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역, 축종, 계절을 서서히 초월하고 있는 느낌이다. 싫든 좋든 AI에 대비해서 예방이 최우선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에 대한 처방전의 최우선은 사육농가들의 의식전환과 그에 따른 축사환경의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논바닥에 파이프를 박아 비닐하우스만을 치고 오리를 사육하겠다는 의식은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록 보온덮개나 차광막을 덧입혀 보강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온단열이 충분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환기설비는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항목이다.

특히 흡통형이나 일자형급수기는 오리주둥이에 묻은 오염물질을 옆에 있는 오리에게 즉시로 전염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은 음수용으로만 공급되면 족할 뿐이지 음수과정에 바닥에 흘리는 물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바닥상태를 더욱 조악하게 만들어 각종 질병을 양산하는 원흉일 뿐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넙플급수기가 이에 대한 차선책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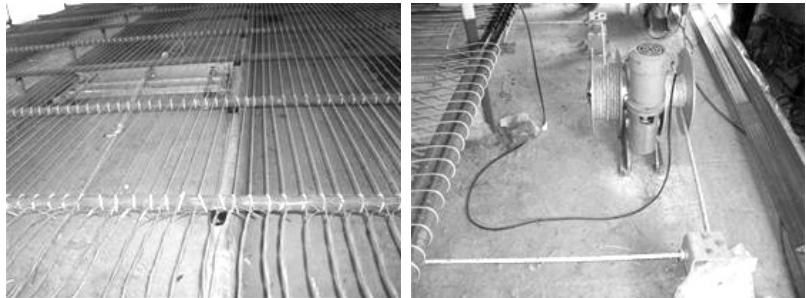


사진 5 | 부산 B씨 오리농장의 고상식축사 작업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고상식축사이다. 고상식축사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오리가 생활할 수 있는 바닥재를 깔고, 배설되는 분뇨는 밑으로 떨어져 화장실이 분리된 환경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깔짚을 깔아주거나 보충해줄 필요가 없고, 밑으로 떨어진 축분은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사육밀도를 높이면서

강건하게 오리를 사육할 수 있다. 실제 우리보다 오리고기를 더 선호하는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과거 평사에서 사육하던 오리를 고상식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도 오리농가에서 고상식 사육을 통하여 고효율을 올리고 있고 정부의 연구기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실제 출하팀들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보면 “고상식축사에서 사육한 닭이 평사에서 사육한 닭에 비하여 손에서 강건함이 느껴진다”고 한다. 그 만큼 건강하게 자란 닭



사진 6 | 국립축산과학원 중오리새(평사와 고상식축사)의 비교실험



사진 7 | 망사형 고상식축사와 최근 개발된 슬랫형 고상식축사

은 AI는 물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실제 약값이 거의 들지 않을뿐더러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국내의 육계농장에서도 고상식축사가 늘고 있다. 생산성향상은 물론 깔짚과 항생제가 필요 없는 친환경축산을 추구하며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도축 후 도계육의 품질에서 배꼽이나 발바닥의 우수한 상태는 계육품질의 등급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려 또 다른 보너스를 받고 있다. 닭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사육해야 하는 오리

사육에 있어서 장치 고상식축사는 관리자와 오리의 건강을 책임지며 우수한 오리고기를 만들어내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3.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는 또 하나 있다. 도압장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형도축장 위주인데 이즈음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대목이다. 대형 도축장까지 운반하려면 물류비는 물론 도로와 주변환경에 적지 않은 오염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AI는 물론 각종 질병의 전염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차라리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위생과 HACCP기준에 맞춰 근거리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또는 권역별 도축장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가까운 일본이 우리나라가 AI로 들썩거릴 때에도 잠잠한 것은 우리가 대형도축장 중심인데 반해 그들은 근거리 소형도축장 체제로 운영되기에 차단방역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지역만 차단하면 간단히 조치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국지적인 문제로 처리가 가능하다. 무조건 크면 좋은 시대가 아니라, 누가 또는 어느 나라가 제안 또는 실행하건 합리성이 전제된 정책입안이나 실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큰 것이 이기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빠른 자가 이기는 시대이다.



사진 8 | 고상식축사에서 사육중인 닭